

홀리타임즈

찬양잘부르기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목 차

CONTENTS

제 1 장 발성 구조 _ 7

제 2 장 발성을 위한 호흡법 _ 22

제 3 장 노래 잘하기 위한 자세 _ 31

제 4 장 노래 잘하는 방법 _ 41

제 5 장 악보 보는 방법 _ 70



1장

/

발성 구조



제 1 장 발성구조

훈련 목적

- * 발성구조에 대해서 배운다.
- * 발성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찬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악보보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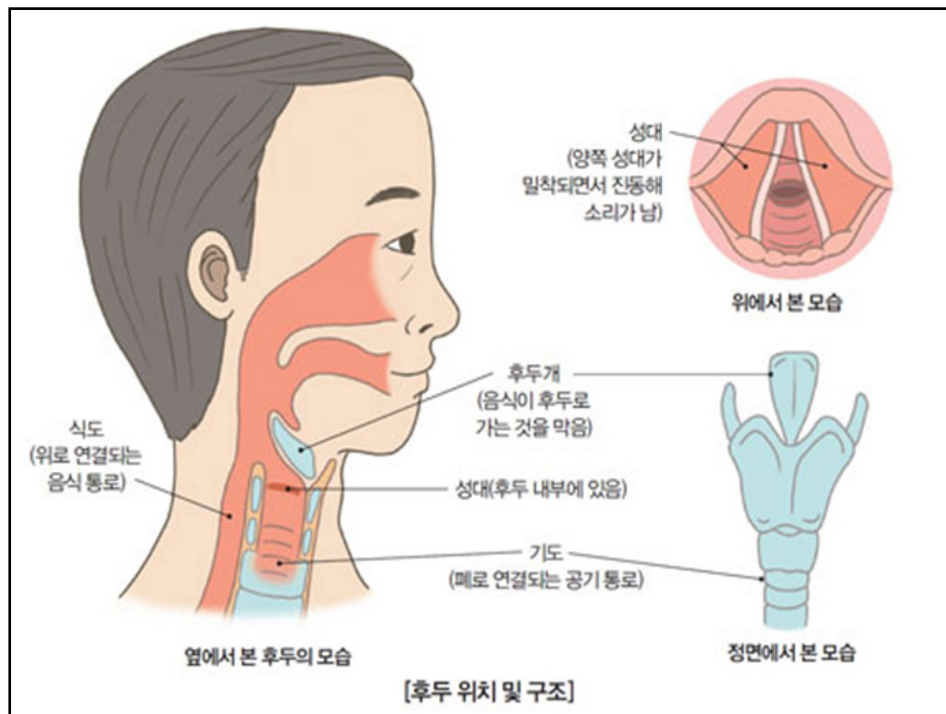
한주간 숙제

- * 매일 찬양연습을 한다.
- * 찬양을 많이 듣는다.
- * 찬양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표현 해 본다.
- * 찬양인도를 해 본다.

1. 발성이란?

가. 사람의 목소리는 오직 성대를 통해서만 만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대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대의 중요성이 95% 정도이고 나머지는 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성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부속기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성대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2. 성대의 구조와 진동성대는 두 개의 성순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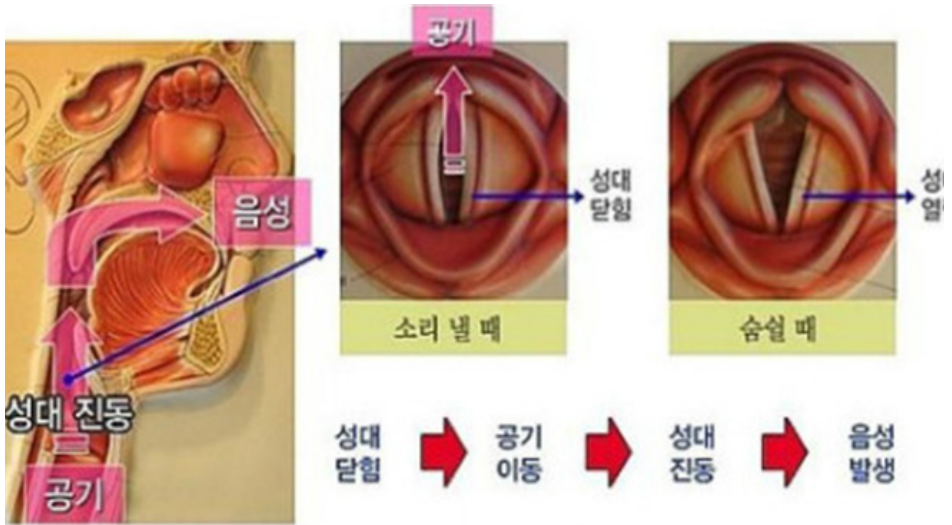
가. 성순은 단백질로 구성된 근육입니다.

나. 폐에서 나오는 공기(호흡)가 성순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 두 개의 성순이 만나는 곳을 가리켜 ‘성문’이라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닫혀지듯이 성문도 열리고 닫힙니다.
- 호흡을 마실 때는 성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때는 성문이 닫힙니다.
- 닫히는 정도에 따라 쉼소리가 나기도 하고 얇은 소리가 나기도 하며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순의 긴장도’와 ‘호흡의 압력도’를 잘 응용해야 합니다.

- 성순만 긴장을 잘 한다고 해서 소리가 잘 나는 것도 아니며 호흡만 좋다고 해서 소리가 잘 나는 것도 아닙니다.
- 성순의 긴장과 호흡의 압력도가 적절하게 작용할 때에 비로소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소리 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에 의해 점차 소리가



좋아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에 의해 좋은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3. 성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가. 성대를 잘못 사용해서 목소리가 이상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 성대결절이랄지 성대가 피곤해서 기
능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경우엔 2-3일동안 일체의 말을 해서

는 안 됩니다.

- 생각으로도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 속으로 노래를 불러도 안 됩니다.
-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 물과 휴식밖에는 성대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4. 나쁜 발성법(음성을 나쁘게 하는 요인 10가지)

- ①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② 힘을 주어 말을 한다.
- ③ 운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낸다.
- ④ 흥분하여 말한다.
- ⑤ 빨리 말한다.
- ⑥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한다.
- ⑦ 극단적으로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로 말한다.

- ⑧ 감기중에 목소리를 사용한다.
- ⑨ 이상한 목소리의 흉내를 낸다.
- ⑩ 피로한 상태에서 말한다.

5. 좋은 발성법(5가지)

- ①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한다.
- ② 상대방이 듣기 쉬운 장소에서 말한다.
- ③ 편하게 나오는 목소리로 말한다.
- ④ 편하게 나오는 목소리로 노래한다.
- ⑤ 넓은 곳이나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한다.

6. 성대의 진동 느껴보기

가. 먼저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호흡이 닿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 그 다음에는 “으”라는 말을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호흡이 훨씬 적게 닿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으”라고 소리를 낼 때에 성대의 떨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대의 진동을 느낄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소리가 울리는 곳이 성대가 있는 곳입니다.

다. 그런 다음에는 호흡을 조금 세게 압력을 주면서 내 뱉으십시오. 그러면 “으”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소리가 선명해지도록 해보십시오. “이”라는 발음으로 해도 좋습니다. 음을 약간 높여서 해도 좋습니다.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번갈아가면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7. 공명이란 ?

가. 소리가 아름답게 나기 위해서는 공명이 필요합니다.

- 공명이 없는 소리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 공명이 제대로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별로 힘들게 소리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공명은 스피커 효과와 같습니다.

나. 제대로 된 발성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공명이 필요합니다.

- 공명은 성대에서 나는 소리가 보다 울림이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 공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미야” “냐” 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 비음은 "N" "M" "NG" 을 가지고 소리를 낼 때 보다 공명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 주로 중성(중음소리)을 낼 때 필요한 공명입니다.

- 중성은 성대에서 나는 소리를 인후에서 올려서 그 소리를 입으로 나오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음이 나올 때 콧속에서 울림을 있게 하면 아주 풍성한 공명소리를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콧속은 엄청나게 넓기 때문입니다. 입 안의 공간보다 콧 속의 공

간이 훨씬 넓습니다. 이 부분을 ‘비강’이라고 하는데 이 상악동과 전두동 부분을 울리게 할 때 아주 풍성한 공명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8. 음색에 관하여

가.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불러도 사람마다 소리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음색이 다르다는 말을 씁니다.
- 음색(音色)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청각을 통하여 주관적인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음색의 차이라고 합니다.
- 어떤 사람은 같은 음이라도 굵직한 소리가 나는가 하면 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맑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허스키 보이즈도 있습니다.

나. 이러한 차이는 성대의 구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속기관의 개인차에서 기인합니다.

다. 노래를 잘 하려면 좋은 음색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찬양인도자의 목소리를 타고 전달됩니다. 거짓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찬양인도자의 사랑표현이 거짓임을 성도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 진실된 목소리를 냅니다. 진실된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는 성도의 심령을 열어줍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훌륭한 찬양인도자가 됩니다.
-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를 내십시오. 똑같은 소리라도 평범하게 말하는 것과 호소력있게 말하는 것의 결과는 다릅니다. 평범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과 호소력있는 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거만한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거만한 목소리와 권위있는 목소리는 분

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찬양인도자들은 거만한 소리를 마치 권위있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거만한 목소리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 콧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콧소리는 설교자의 급을 떨어뜨립니다. 어쩌다 콧소리가 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콧소리로 일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콧소리는 성대의 울림을 사용하기 보다는 성대가 아닌 코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성대에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콧소리를 즐겨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성대 진동으로 인해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콧소리가 본인의 귀에 훨씬 좋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발성 훈련을 받아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 짜증난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짜증난 목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화난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가끔씩

화난 목소리를 낼 경우도 있겠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화난 목소리로 노래
를 하면 모든 성도가 달아날 것입니
다.

- 사나운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사나운
목소리의 찬양인도자는 성도를 잡아
먹으려는 짐승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가 사나운지 살펴 보십
시오.
- 할아버지(또는 할머니)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할아버지(할머니) 목소리
가 나는 것은 몸에 힘이 빠지고 특히
아랫배(단전)에 힘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 저절로 힘이 빠진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런 목소리는 매우 늙어보
이는 느낌을 줍니다. 80세 나이라 할
지라도 30-40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목소리는 외모에 비해 거의 늙
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사람들
이 늙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힘이 없
어서 그런 것입니다.
- 믿음이 없는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찬양인도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
지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
다. 믿음이 있는 목소리는 매우 확신
이 있으며 매우 담대하며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목소리는 담대하지 못하며 확신이 없으며 소극적인 목소리입니다.

-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하기 싫어서 억지로 노래하듯이 찬양하면 성도들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찬양들으러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2 장

/

발성을 위한 호흡법

제 2 장 발성을 위한 호흡법

훈련 목적

- * 발성구조에 대해서 배운다.
- * 발성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찬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악보보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한주간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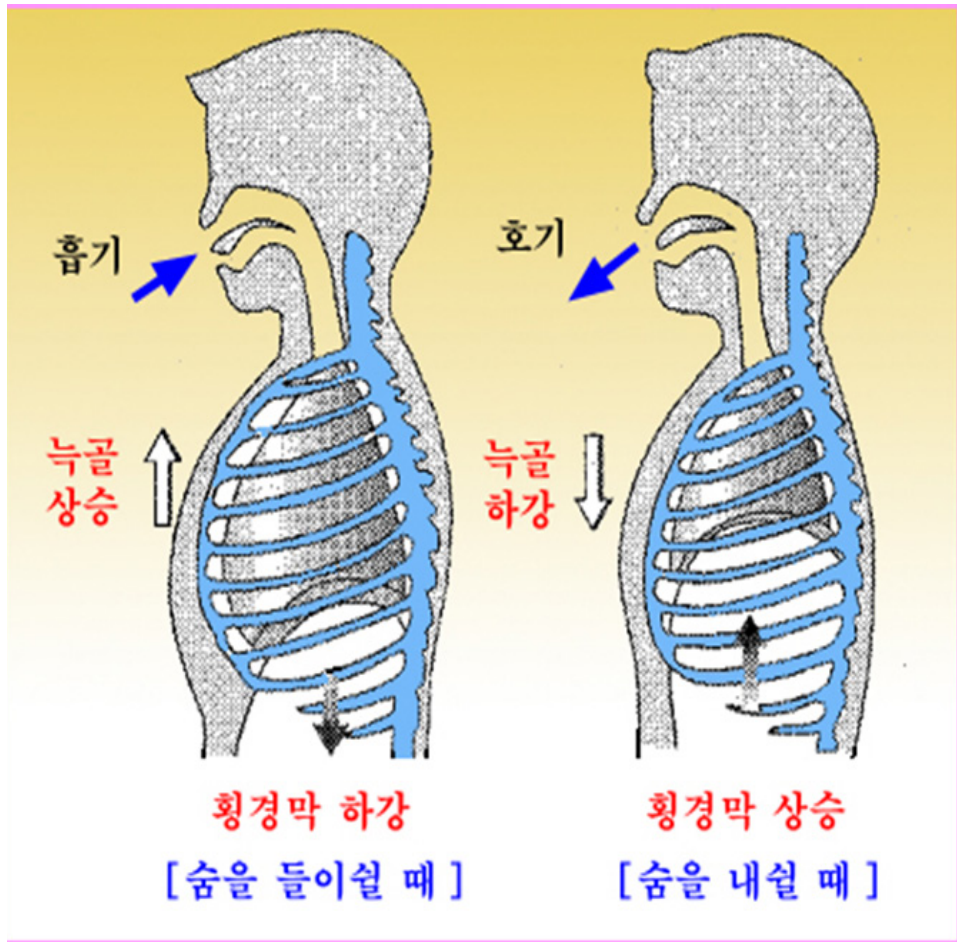
- * 매일 찬양연습을 한다.
- * 찬양을 많이 듣는다.
- * 찬양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표현 해 본다.
- * 찬양인도를 해 본다.

1. 호흡에 관하여

가. 성대가 진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 폐안에 허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산소를 흡입하는 호흡기관입니다.

나. 그리고 허파 바로 밑에는 흉강(폐를 둘러싼 부분)과 복강(소화 기관과 배설 기관을



둘러싼 부분)을 나누는 횡경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이 횡경막이 팽창하여 밑으로 내려가며 따라서 허파도 팽창하게 되어 공기가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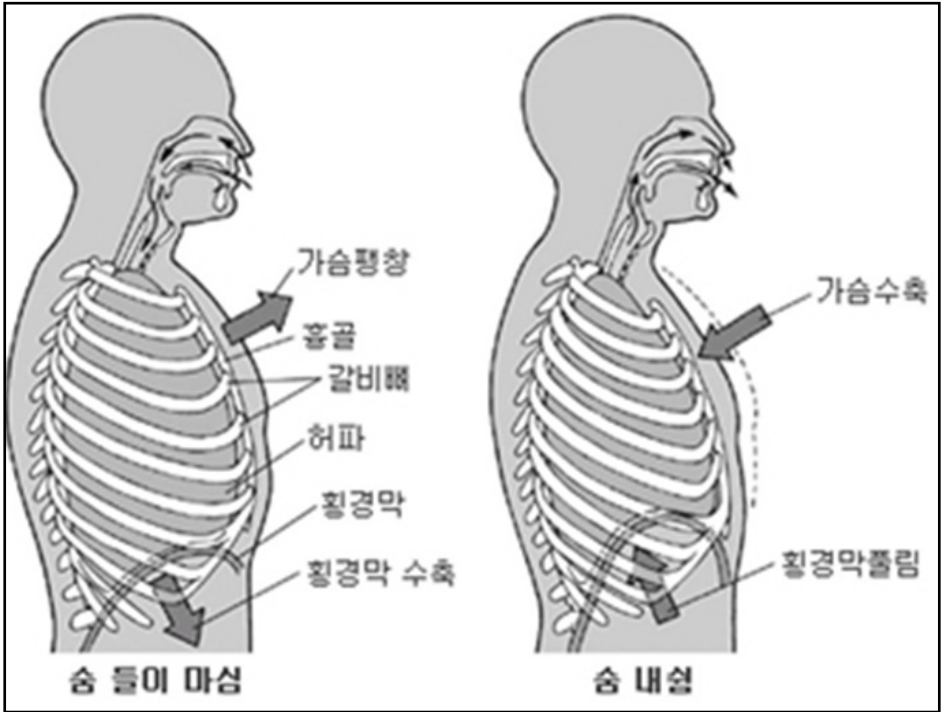
와 허파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 이때 들어온 공기는 발성시에 기관을 통하여 성대의 하면에 충돌합니다.
- 따라서 성문은 그 압력에 의하여 지금까지 닫혀 있던 것이 열리게 되고, 그 후 원상태로 돌아가 성문은 폐쇄됩니다.
- 이러한 현상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일어날 때 성대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2. 복식 호흡

가. 복식호흡 하기

- 우리는 노래를 부를때 복식호흡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배로 하라고 하면서 배에 힘을 주라고 합니다.
- 그러나 이것은 틀린 발성법입니다.
- 일반적으로 복식호흡하면 배로 하는 호흡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해서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배로 호흡을 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호흡에 관계되는 횡경막이 얼마만큼 팽창하느냐에 따라 호흡 량



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횡경막이 적게 수축하면 호흡량이 적으므로 얕은 호흡이 되고 횡경막이 크게 수축하면 호흡량이 많아짐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횡경막의 큰 수축을 이용한 깊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깊이 숨을 들이쉴때 폐가 팽창되고 폐의 확장에 따라 다른 내장 기관들이 밀리게 되어 복부가 외형적으로 팽창이 됩니다.
-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배가 볼록 볼록거리니까 배로 하는 호흡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흡량을 최대한 이용하는 허파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배에 힘을 준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나. 호흡연습을 위한 자세

- 양발은 편하게 어깨 넓이보다 약간 좁게하고 왼발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준다.
- 엉덩이는 뒷쪽 45도방향 위로 살짝 당겨주고 몸의 중심은 앞쪽(내민 왼다리 쪽)으로 몸에 중심을 둔다.
- 몸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가슴 윗쪽을 앞쪽 45도 방향으로 밀어 준다.
- 머리는 수평보다 약간 위를 향하도록 하고 턱을 뒤로 약간 당겨 준다.
- 몸이나 어깨 목에 절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다. 호흡관리를 위한 연습

1) 호흡할 때 주의할 점:

- 연습중에 입을 벌리며 숫자(리듬)를 세는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 호흡 연습시에는 머리가 뒤로 기울지 않도록 책을 올려 놓고 연습하도록 한다.
- 흡입-배기 할 때 상복부와 하복부의 움직임이 눈에 확 띄도록 한다. (복부를 풍선 처럼 생각하고 흡입한다.)

2) 흡입:

- 1~5까지 마음속으로 세면서 흡입한다.
- 힘을 빼고 숨을 들이 쉴 때 하복부를 제외한 상복부와 중복부, 옆구리가 최대한 팽창이 되어야 하며 흉골 그리고 늑골이 팽창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앞가슴이나 어깨 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어깨가 들쭉이지 않도록 하자.
- 익숙해지면 상복부 중복부의 흡입 동작을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도록 연습하자. 나. 정지호흡

을 흡입한 뒤 멈추고 멈추는 동안 흉골, 늑골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1에서 5까지 마음속으로 센다. 이때 허리나 목 등을 긴장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기:

- 배기(날숨)할 때는 처음순간에 중복부(배꼽 주변)가 약간 앞으로 들어간다. 항상 중복부 늑골 흉골은 수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흡입 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1~5까지 세면서 숨을 내쉰다 (점차적으로 세는 수를 점점 늘려서 익숙해지면 40초까지 늘여서 연습한다).
- 배기 때에 S발음("스~"발음)을 거의 들리지 않도록 내면서 S의 소리가 고르게 나도록 연습해야 한다.





3 장

/

노래 잘하기 위한 자세

제 3 장 노래 잘하기 위한 자세

훈련 목적

- * 발성구조에 대해서 배운다.
- * 발성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찬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악보보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찬양연습을 한다.
- * 찬양을 많이 듣는다.
- * 찬양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표현 해 본다.
- * 찬양인도를 해 본다.

1. 올바른 자세의 필요성

가. 발성법에 있어서 호흡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 이는 아무 리 올바른 호흡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공명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명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육체적, 심리적

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편하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올바른 발성법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필수적이고 올바른 자세의 가장 기본은 노래하기 편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서 있는 자세

가. 노래를 부르는데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자세가 서 있는 자세입니다.

-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내장 기관 특히 폐와 횡경막이 움직임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땅을 딛고 서 있도록 지탱 해주는 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양발이 평행하도록 하며 양발을 서로 붙이지 않고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간격으로 띄우고 양발의 각도 또한 너무

벌이지 않고 중심에서 양쪽으로 약 15도 정도 벌린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개인마다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또 발의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상체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편 노래를 할 때에 허리를 앞으로 양간 숙인 분들도 있고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제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와 횡경막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숙이지도 않고 뒤로 제치지도 않은 양 가슴을 펴고 곧게 서 있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허리를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발생되고 나오는 통로인 목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 목도 허리 와 마찬가지로 숙이지도 않고 뒤로 제치지도 않은 바로 서 있는 자세가 가장 이상 적이지만 우리가 차려 자세일 때의 목의 자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차려 자세일 때는 목을 당기지만 만약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목을 당기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무리하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발성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목을 앞으로 숙여셔도 안되지만 근육이 무리하게 긴장될 만큼 목을 당겨서 곧바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3. 앉아 있는 자세

가. 앉아 있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에 비하여 발성시에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 왜냐하면 서 있는 자세에 비하여 폐와 횡경막의 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자세를 바로 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앉아 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목을 바르게 세 운다면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능하면 발성시에는 서 있는 자세를 권하고 싶습니다.

나. 찬양을 할 때는 앉아서 해도 상관없고 서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길게 뿔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횡격막의 움직임을 잘 느껴야만 합니다..
- 그렇다고 횡격막에 신경을 쓰다보면 오히려 찬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턱의 움직임

가. 턱은 구강 공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는 턱을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 구강의 공명강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발성을 하게 되면 공명강의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소리가 세어나가게 되고 소리

떨림(바이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턱의 움직임은 약간 안으로 당기듯이 아래로 벌리는 것입니다.
- 이때 둥근 모양의 구강 구조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된 공명강을 갖추게 됩니다.

나. 찬양할 때의 턱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모양과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 하지만 음이 높아지거나 강력한 소리를 낼 때에는 보다 턱이 벌어져야만 합니다.
- 찬양하는데 수줍어 하는 사람치고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턱을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5. 입 모양

가. 우리가 내는 소리는 최종적으로 입으로 나옵니다.

- 그래서 소리를 최종적으로 내는 출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입을 크게 벌릴 경우에는 오히려 소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반대로 지나치게 입을 모으면 아주 가늘게 뿜아 내는 실과 같은 소리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 물론 입 모양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그러나 어느 정도 표준적인 모양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나. 첫째, 입모양을 조절함에 있어서 입 주위에 근육에 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발음에 따라 원활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둘째, 입을 벌릴 때 옆으로 벌어서는 안됩니다.

- 입을 옆으로 벌리게 되면 소리가 모이지 못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퍼지는 느낌을 줍니다.
- 따라서 입 모양은 아래로 벌어지는 모양을 취해야 합니다.

- 성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입모양을 가리켜 달같이 서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 즉 옆으로는 많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 아래로 벌리는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모양으로 노래할 때 오히려 감정과 발음상의 문제가 됩니다.
- 따라서 입은 보통 말할 때의 모양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장

/

노래 잘하는
방법

제 4 장 노래 잘하는 방법

훈련 목적

- * 발성구조에 대해서 배운다.
- * 발성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찬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악보보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찬양연습을 한다.
- * 찬양을 많이 듣는다.
- * 찬양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표현 해 본다.
- * 찬양인도를 해 본다.

1. 울림이 큰 소리를 내는 방법

가. 울림이 큰 소리를 내는 방법은 성대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 성대의 두 성순이 최대한 잘 달라붙어서 울려줄 때 강력한 압력이 생깁니다.

나. 강력한 압력이 생길 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강력한 압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순의 긴장도와 호흡의 압력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성순이 긴장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 보십시오.
- 성순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호흡을 성순에 밀어줘야 합니다.

다. 큰소리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다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 울리는 뽕따리 소리를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 이는 울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울림이 풍성할 때 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 큰 소리만 내려고 하지 말고 큰 울림이 되는 소리를 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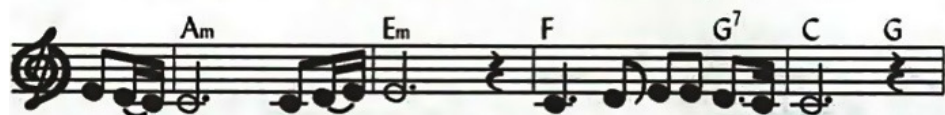
5167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형원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거 나- 는 이 길을 가리 라



좁은-문 좁은-길 나 의 십자가 거 고



나 의 가는 이 길 끝 에-서 나- 는 주님을 보리 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를 맞아 주시 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는 일어나 달려 가리 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을- 때 나 는 일어나 노래하 리



내 사모하는 주님- - 온 세 상 - 구 주시 라



내 사모하는 주님- - 영광 의 왕이 시 라

2. 폭넓은 소리를 내는 법

가. 폭넓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물론 성대의 성순을 잘 이용하거나 호흡의 압력도를 잘 조절할 때에도 폭넓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입 안을 열어줄 때 소리가 폭넓어 집니다.

나. 하지만 지나치게 입을 열어버리면 소리가 흔들리게 되어 좋지 않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 마치 파도가 출렁거리듯이 소리가 위아래로 파동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을 너무 넓게 벌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긴장을 너무 풀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을 많이 열어야만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가져다 주는 아픔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Saul Morales 작사
Saul Morales 작곡

A *E/G#* *F#m* *E*

주 발 앞 에 - 무 릎 꿇 고 - 그 사 랑 에 - 나 안 기 네 -

A *E/G#* *F#m* *E*

어 떤 말 도 - 그 어 떤 소 리 - 도 그 발 앞 에서 - 잠 잠 해 지 네 -

E9 *F#m* *C#m7* *Em* *A* *D(add2)*

주 나 의 사 - 랑 - 그 발 앞 에 - 앓 아 - - - -

Bm *A/C#* *D* *Esus4*

내 모 든 기 도 - 는 - 사 랑 의 노 래 가 되 네 -

E *A* *E* *C#m7* *F#m*

주 의 옷 자 락 만 지 며 주 의 두 발 을 씻 기 며 - 주 님

D *C#m7* *F#m7* *Bm7* *Esus4* *E*

- 그 발 에 입 맞 - 추 며 - 나 의 왕 관 을 놓 으 리 - 주 의

A *E* *C#m7* *F#m*

옷 자 락 만 지 며 - 주 의 두 발 을 씻 기 며 - 주 님

D *C#m7* *F#m7* *Bm* *D/E* *A*

- 그 발 에 입 맞 - 추 며 - 나 의 왕 관 - 을 놓 으 리

3. 발음상의 문제해결

가.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를지라도 제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착각할 정도로 정확한 발음이 나게 됩니다.

나. 발음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혀끝입니다. 혀 전체를 사용해서 발음하기 보다는 혀 끝만 사용해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발음이 선명합니다. 혀끝과 윗몸과 적절한 마찰을 통해 발음할 때 보다 정확한 소리가 납니다.

다. 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노래가 망가지게 됩니다.

- 노래는 음률이 있는 발음입니다. 음률이 먼저이지 발음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생은 발음을 음률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 우리나라 어린이 합창단과 세계적인 어린이 합창단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합창단은 발음이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딱딱하고 촌스럽습니다.
- 그러나 세계적인 어린이 합창단의 소

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발음이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음률이 더 중
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
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 랑 합 니 다 - 나 를 자 녀 삼 으 신 주 -



사 랑 합 니 다 - 나 를 자 녀 삼 으 신 주 -



내 부 르 짓 음 들 으 시 고 감 싸 주 시 - 는 -



영 원 히 주 찬 양 합 - 니 - 다 내 삶 을 다 해 -

4. 소리를 앞으로 낸다.

가. 소리는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는 주로 중성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 두성과 흥성은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소리를 앞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중성소리만 앞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 오히려 소리는 뒤통수 뒤로 내야 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 앞으로 내려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시끄럽게 됩니다. 촌스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소리를 뒤통수쪽으로 내게 되면 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다. “나에게 노래하라”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 사람들은 주로 상대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래를 합니다만 진짜 성악가들은 자신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

려줍니다.

- 수많은 청중이 있더라도 청중을 향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에게 노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악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 정성실 曲 * —

E E/D# C# E/B A E/G# F# B7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

E E/D# C# E/B A B7 E
낮의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E E/D# C# E/B A E/G# F# B7
남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E E/D# C# E/B A B7 E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B7 E# E B7 /A E/G# G#D#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C# A F# B7 E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 - 다

5. 얹게 낸다.

가. 소리를 얹게 낼 때 보다 곱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얹게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입을 조금만 열어야 합니다. 마치 입을 다문 것처럼 해야 합니다.

나. 얹게 소리를 내는 것은 최대한 성대의 성문을 조금만 달게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주로 pp(피아니시모)와 같이 극도로 소리를 작고도 아름답게 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 성대의 성문을 조금만 달게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곳은 혀뿌리입니다. 혀뿌리(턱밑 부드러운 부분)를 최대한 힘을 주어서 혀뿌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이것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턱을 쇠골하뼈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턱을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다소 보기싫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혀뿌리만 힘을 주

어야 합니다.

- 또한 최대한 얼굴모습을 예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약할때 강함되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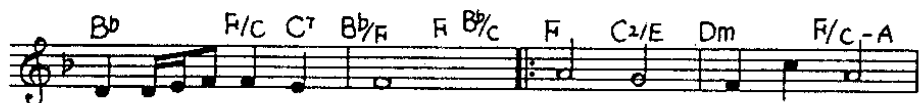
— Dennis Jernigan —



약할때 강함되시 네 나의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 네 주님의 이름 찬양 해 주나의 모든



것 - - 주안에 있는 보물 을 나눈포기할 수없
것 - -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빈 잔을 채우



네 주나의 모든 것 예 스 어 린 양



존 귀 한 이 름 - - - 존 귀 한 이 름

6. 흉성과 두성

가. 흉성과 두성은 한 식구입니다. 흉성과 두성은 서로 길이 같습니다. 흉성과 두성의 중간에 중성이 있는데 중성은 우리가 평상시에 내는 소리입니다. 주로 중성은 인후부분을 이용하여서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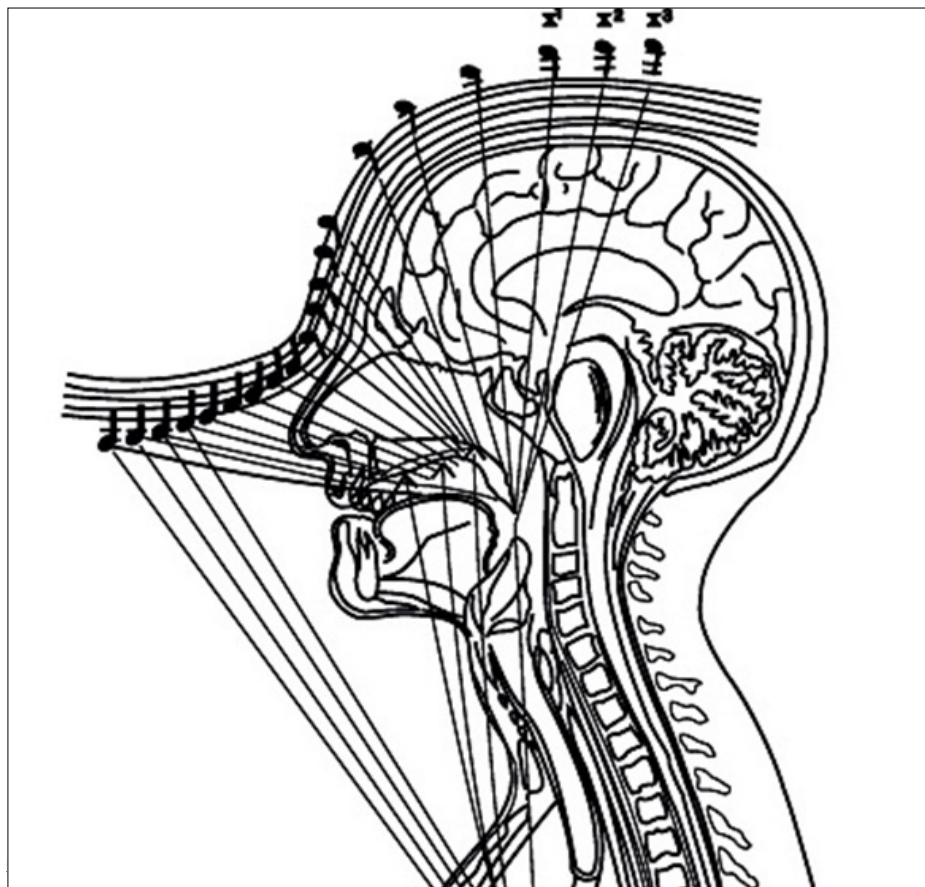
나. 하지만 흉성과 두성은 주로 성대만 이용합니다. 물론 중성도 성대를 이용합니다. 모든 소리는 성대를 통해 납니다. 하지만 흉성과 두성은 중성에 비해 훨씬 인후부분을 사용하지 않고서 소리를 냅니다.

다. 흉성은 성대소리를 가슴에서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두성은 성대소리를 머리에서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 흉성과 두성이 길이 같기 때문에 흉성에서 곧 바로 두성으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 만일 흉성에서 두성으로 부드럽게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중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발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끊임없이 흉성에서 두성으로 부드럽

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다보면 잘 될 것입니다.

- 훌륭한 성악가일수록 흥성과 두성의 연결이 부드럽습니다. 흥성과 두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노래가 아름답게 됩니다.



주께 가오니

Geoff Bullock

올네이션스 역

1. 주께가 오니 - 날새롭게 하 시고 -
2. 나의눈 열어 - 주를보게 하 시고 -

주의온혜 를 부어주 - 소 서
주의사랑 을 알게하 - 소 서

내안에발 견한 - 나의연약 함 모두 -
매일나의 삶에 - 주뜻이뤄 지 도록 -

~ 벗어나리 라 - 주의사랑으로 - - - -
새롭게하소 서 -

주 사랑 - 나를볼드 시 - - 고

주 곁에 - 날이끄소 - 서 - -

독 수리 - 날개쳐올라 가 - - - 듯 나주님과함

게 일어나걸으 리 주의 사랑안에 - - - -

7. 여러가지 음색의 노래 부르기

가. 아름답게 부르기:

- 믹스보이스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 단어의 발음을 부드럽게 말합니다.
- 두성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 슬프게 부르기:

- 목소리를 조금 떨면서 부릅니다.
- 슬픈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릅니다.

다. 기쁘게 부르기:

- 다소 진성을 많이 사용해서 부릅니다.
- 기쁜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릅니다.
- 약간 신이나듯이 부릅니다.

라. 느끼한 느낌으로 부르기:

- 다소 흉성을 사용합니다.
- 발음을 넓고 두껍게 감싸면서 부릅니다.
- 후두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서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의 맘과 뜻대로 주를 사랑합니다

날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나

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교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신나의 주

감사 내사 감사

— ❀ Henry Smith ❀ —

8. 내게 맞는 음역대 찾기

가. 음역대란?

-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저음)과 가장 높은 음(고음)사이의 영역
- 기본적으로 음역대는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로 구분됩니다(메조소프라노, 콜로라투라소프라노, 바리톤도 있습니다).

나.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음역대를 찾아야 합니다.

- 자신에게 맞는 키(key)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름다운 노래는 중음에서 이뤄집니다. 중음을 잘 처리할 때 노래가 아름답게 됩니다(굳이 고음대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고음불가와 저음불가

- 주로 성대가 짧고 작으면 고음이 납니다.
- 주로 성대가 길고 크면 저음이 납니다.
- 베이스도 고음을 낼 수 있으며 소프라노도 저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음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저음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가능합니다.

라. 자신의 음역대를 찾는 방법

- 목이 굽은지 가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이 굽으면 대체적으로 고음이 잘 나옵니다.
- 목이 짧은 편인지 확인합니다. 목이 짧으면 대체적으로 고음이 잘 나옵니다.
- 얼굴이 큰 편인지 확인합니다. 얼굴이 큰 사람은 고음이 잘 나옵니다.
- 얼굴 모양새가 계란형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계란형이 아닌 경우엔 고음이 잘 나옵니다.
- 키가 작은 편이라면 고음이 잘 나옵니다.
-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 고음이 잘 나오게 됩니다.

오 예수님

고형원 작사/작곡



오 예수님 내 가슴에 못 박히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신 십자가 앞 돌아오 니 다 주



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 관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



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



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9. 믹스보이스로 노래하기

가. 믹스보이스로 노래해야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성과 가성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 중저음에서 고음까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나. 믹스보이스 만들기

- 흥성일때는 성대 마찰면적이 넓어집니다.
- 두성일때는 성대 마찰면적이 좁아집니다.

온맘으로 송축하리

온맘 으 로 송축 하리 생명 다 해 주 섬 기 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 든 것드려 - 주 경 배

경 배 해내삶을 드 려 주께 경 배 경배드- 리 리 -

내삶을 드 려 주께 경 배 경배드- 리 리

10. 두성 헤드보이스로 노래하기

1) 두성 헤드보이스는 가성과 비슷합니다.

- ‘우’라는 사이렌 소리 또는 방청객 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 하품하기 바로 직전처럼 뒷 공간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 쉽게 나오게 됩니다.
- 지라레(Girare: 돌린다) 식으로 소리를 돌리면서 앞쪽으로 냅니다.
- ‘마메미모무’라는 말로 짧게 빠르게 하면서 발성연습을 합니다.

2) 고음을 잘 나게 하는 방법

- 손가락을 목젖(연구개)이 닿기 전까지 넣어봅니다.
- 어금니에 엄지손가락을 닿게 합니다.
- 발레리나처럼 가슴을 펴니다.
- 천장과 머리가 고무줄로 연결된 것처럼 소리낼 때 뒤통치가 들려지게 합니다.
- 벽을 밀면서 소리를 냅니다.
- 허밍으로 소리를 냅니다.
- 립트릴(Lip Trill)로 소리를 냅니다.

주 앞에

Majesty



주 앞 - 에 겸손히나서 있네 - 주 은혜날자유케해 -
주 앞 - 에 그사랑날겸손케해 - 용서받은날용서하네 -



주 앞 - 에 죄인된내 모습보네 - 주 보혈날뉘으셨네 - 생
나 이 제 - 는 주사랑안에-있네 - 영광의불날거룩케해 -



명 주 신 그놀라운희 생 으 로 가장크신사 랑 주내게 주셨 네



위 - 대 한 - 나 - 의 주 - 그 은혜의손길안에서



- 주의 능력으로살아가리 - 위 - 대 한 - 나 - 의 주



- 그 영광의임재안에서 - 주의 사랑으로변화되리 -

11. 후두를 내리고 후두를 강하게 하는 방법

가. 후두는 무엇인가?

성대가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나. 후두를 내리는 방법

- 깊은 호흡(복식호흡)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잘 하면 성대가 쉽게 내려갑니다.
- 하품을 할 때 후두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후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후두가 내려갈 때 혀가 같이 내려가야 합니다.
- 후두를 내릴 때 쉼소리(호흡소리)를 내지 않고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할 때 자꾸 쉼소리가 나게 됩니다.

3) 후두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

- 근육연습하듯이 많이 해야 합니다.
- 목을 열면서 후두를 내리십시오.

은혜로만

Gerrit Gustafson

예수전도단 역

은혜로만 - 들어가 - 네 - 은혜로만 - 선대네 -
 우리의노 - 려이아 - 닌 - 어린양의 - 보혈로 -

그분의잉 - 재가운 - 데 - 오 라 - 하시네 -

우리를부 - 르신그 - 곳 - 은 혜로들어 - 가 네 -

주님의그 - 은 혜 - to Coda -last time 범죈한우 - 리가어 - 켜

서 리 요 어린양의 - 보혈이 - 개꽃케 - 하시네

1.3. Dm⁷ E E/G# 2.4. F/G G⁴ G Dm⁷ F/G C
 D.C. al Coda 주님의그 - 은 혜 -

12. 비브라토(Vibrato)로 노래하기

가. 비브라토란?

- 음을 위 아래로 떠는 것을 말합니다.
- 바이브레이션은 소리진동 자체를 말합니다.

나. 비브라토를 하게 될 때 좋은 점

- 노래가 풍성해집니다.
- 음이 안정되게 들려집니다.
- 음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 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 음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줍니다.

다. 비브라토의 종류

- 성대 비브라토: 성대 내리기와 올리기를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창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느낌이 좋고 부드럽다. 하지만 성대에 긴장을 주어서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 턱 비브라토: 턱밀을 움직여서 비브라토를 만들기 때문에 울림이 크고 촘촘스러울수가 있습니다.
- 흉식 비브라토(보식 비브라토): 배를 움직여서 소리를 떠는 것을 말합니다. 고음에서 매우 파워있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서는
매우 느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트
로트 가수가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
니다.

라. 비브라토 연습하기

- ‘아~’ 소리를 내면서 마치 파도치듯이
합니다.
- ‘아~’ 소리를 내면서 마치 공을 튀기
듯이 합니다(공을 얇게 빠르게 뛰는
것처럼 하거나 공이 높게 폭이 넓게
튀듯이 합니다)
- ‘아~’ 소리를 내면서 몸을 흔들어서
비브라토를 만듭니다.
- ‘아~’ 소리를 낼 때 배(횡격막)를 눌러
주면서 비브라토를 만듭니다.
- ‘아~’ 소리를 낼 때 성대를 흔들면서
비브라토를 만듭니다.
- 비브라토를 작고 크게 하기도 하지만
비브라토를 없애면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 극히작은자 죄인 중 에괴수 무익 한 날 부르셔 서



간절한 기대와소망 부끄 럽 지않 게 십자 가 전케 하셧 네



어디 든지가리라 주위 해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십자 가



내 몸 에벤십자가 그보 혈 의향기 온세 상 채울 때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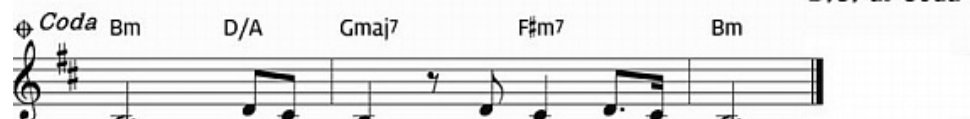


살아 도주를위해 죽어 도주를위해 사나 죽으 나 난주의 것



십자 가 의능력 십자 가 의소망 내안 에주만 사시는 것

D.C. al Coda



네 내 사 랑 나 의 십자 가





5 장

/

악보 보는 방법

제 5 장 악보 보는 방법

훈련 목적

- * 발성구조에 대해서 배운다.
- * 발성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찬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 * 악보보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찬양연습을 한다.
- * 찬양을 많이 듣는다.
- * 찬양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표현 해 본다.
- * 찬양인도를 해 본다.

1. 음이름/음자리표 알기

The image shows musical notation for the C major scale. The top staff is in bass clef (F1 to F4) and the bottom staff is in treble clef (C4 to C5). Both are in 1/4 time. Below the notes are Korean syllables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and English syllables (Do, Re, Mi, Fa, Sol, La, Si, Do). Below the English syllables is a table of note names in Korean, English, and scientific notation for the C major scale.

계이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태리	Do	Re	Mi	Fa	Sol	La	Si	Do
음이름	가	나	올림다	라	마	올림바	올림사	가
영,미국	A	B	C#	D	E	F#	G#	A

음 이 름

이탈리아

영미

대한민국

이탈리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Do	Re	Mi	Fa	Sol	La	Si	Do	
C	D	E	F	G	A	B	C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온 음 계

5개 온음+2개 반음

옥타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온음 반음

*음자리표

- **높은음자리표** : '사(G)음자리표'라고도 하며 주로 '가온다'음보다 높은 음을 적을 때 사용한다.



- **낮은음자리표** : '바(F)음자리표'라고도 하며 주로 '가온다'음보다 낮은 음을 적을 때 사용한다.



- **가온음자리표** : '크(C)음자리표'라고도 하며 주로 '가온다'음을 중앙으로 하여 높고, 낮은음을적음(



- **가온음자리표의 종류** : 가온음자리표는 종류에 따라 <소프라노표>, <알토표>, <테너표>로 구분!

*음이름

- 음악에 사용하는 음을 높이에 따라 부여한 이름으로 조가 바뀌어도 그 명칭은 변하지 않는다. 음 이름 마, 바, 사, 가, 나 의 7음으로 되어있다.



*계이름

- '도, 레, 미, 파, 솔, 라, 시'의 7음을 계이름이라 하며 음 이름과 달리 조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한다.



2. 음표와 쉼표

4분음표 4분쉼표		모양	이름	길이 (♩를 1박으로 했을때..)
8분음표 8분쉼표			점 온음표	+ = 6
16분음표 16분쉼표			점 2분음표	+ = 3
2분음표 2분쉼표			점 4분음표	+ = 1 1/2
온음표 온쉼표			점 8분음표	+ = 3/4
점4분음표 점4분쉼표			점 16분음표	+ = 3/8
점8분음표 점8분쉼표				

온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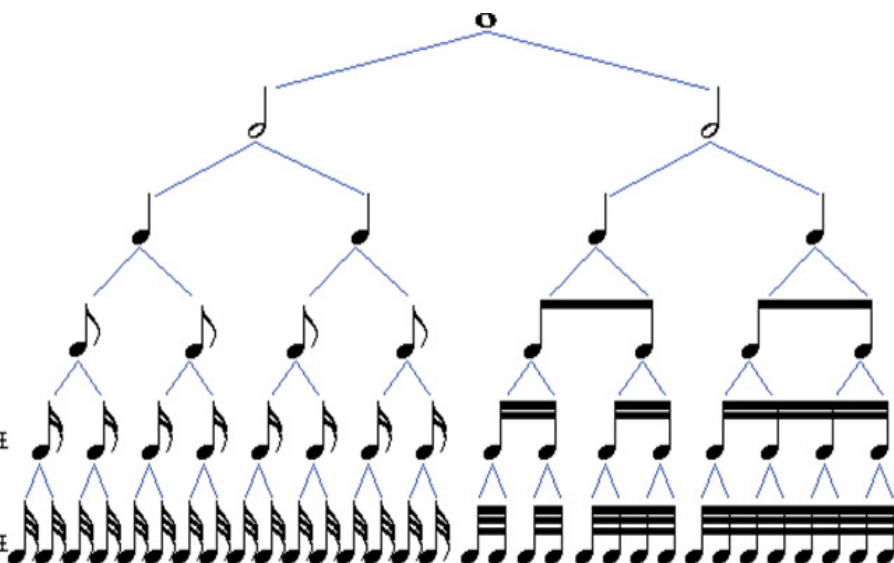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모양 이 름

길 이 (♪ 를 1박으로 했을때..)



겹점 온음표

$$\text{Whole note} + \text{Half note} + \text{Half note} = 7$$



겹점 2 분음표

$$\text{Half note} + \text{Quarter note} + \text{Quarter note} = 3 \frac{1}{2}$$



겹점 4 분음표

$$\text{Quarter note} + \text{Eighth note} + \text{Eighth note} = 1 \frac{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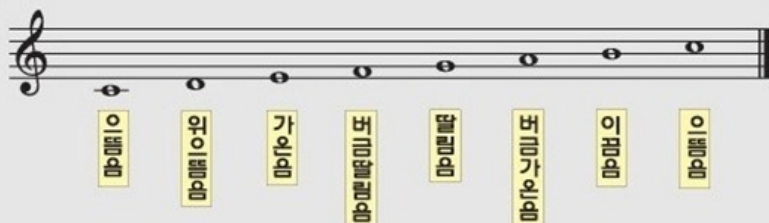
겹점 8 분음표

$$\text{Eighth note} + \text{Sixteenth note} + \text{Sixteenth note} = \frac{7}{8}$$

3. 음계

-각 음계의 이름

*으뜸음:최고 *가온음:중간 *알림음:부족 *버금알림:조금부족 하다는 의미입니다.



-# 과 b 이 붙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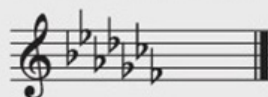
악보를 보면 #과 b이 붙어 있는데 오선지에 무조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장조 음계 기준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표기를 해야됩니다.

#이 붙는 순서 : 파도솔레라미시 b이 붙는 순서 : 시미라레솔도파

쉽게 말하면 다장조 기준으로 #이하라면 '파'만 반음을 올리고 #이 3개면 '파와 도'를 반음을 올리면된다. 만일 b이 하나면 '시'만 반음을 내리고 b이 3개 이면 '시,미,라'를 반음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파도솔레라미시



시미라레솔도파

서로반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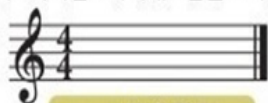
4. 박자

-박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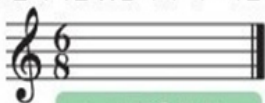
한마디 안에 들어가는 박자의 단위와 개수를 박자표라고 합니다.

문모와 문자로 표기하면 4/4박자이면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3/4박자는 1마디에 4분음표가 3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6/8박는 8분 음표가 6개 들어가는 것입니다.



4분음표가
한마디에
4개 들어간다.



8분음표가
한마디에
6개 들어간다.

-맞춘마디 못맞춘 마디

곡의 시작이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시작하는 곡을 못맞춘 마디입니다.

즉 박자와 박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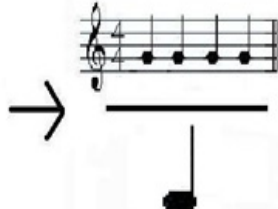


한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의 개수

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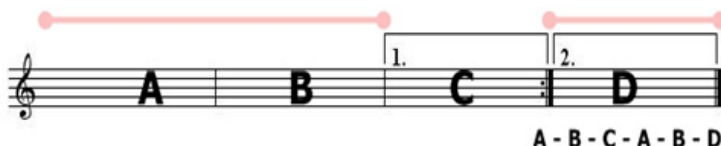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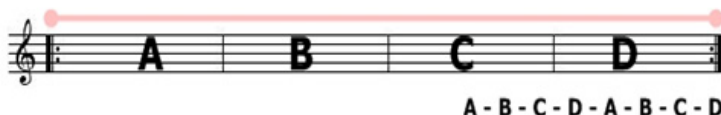
$$\rightarrow \frac{4}{4}$$

$$\frac{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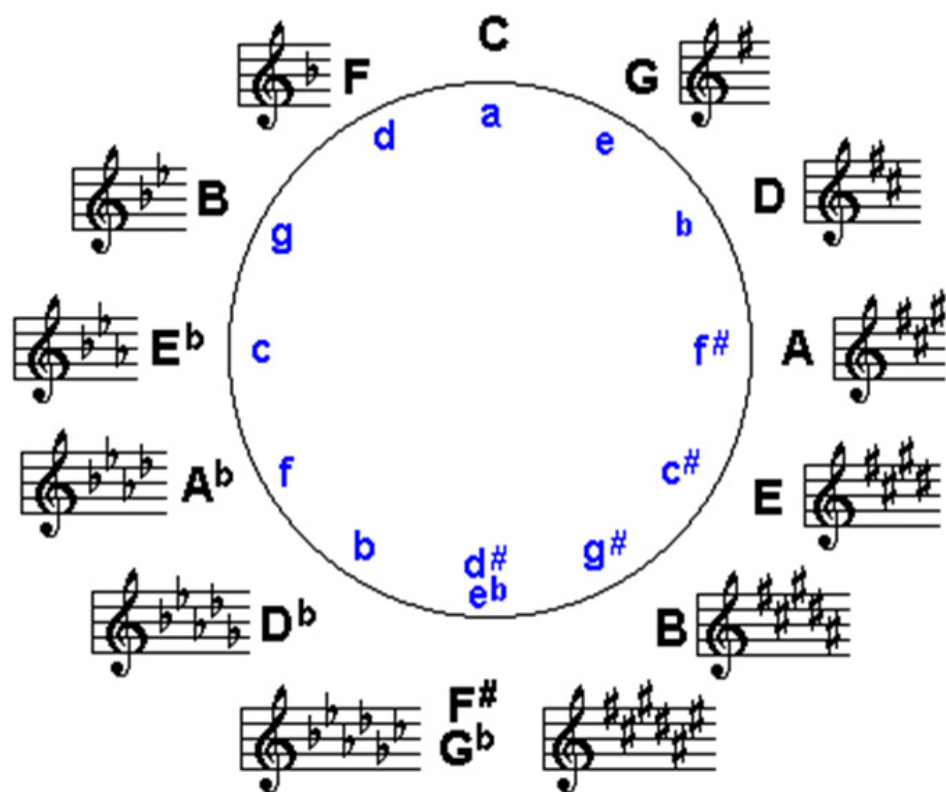
반복기호(Repeat sign) -1- 도돌이표(Repeat mark)

도돌이표(Repeat mark) : 도돌이표가 그려져있는 구간을 두번 반복해 연주 하라는 표시입니다.
단, 제일 처음 마디부터 반복되는 경우 반대쪽 도돌이표는 생략해주며
상황에 따른 도돌이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의 마디가 다를때는 번호와 괄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5. 조표



찬양 잘 부르기반 교재

초판발행 2018년 6월 26일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영성훈련을 원하십니까?

국제영성대학

국제영성대학 접수안내

- 접수: **수시접수**
- 훈련방법: 본부채널과 분교채널에서 동시 수강
- 훈련강사: 데이빗리목사, 이안나목사, 분교 담임목사
- 접수조건: 목사, 사모,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
- 훈련시간: 월~토(공지사항 참조)
- 등록비: **무료**
- 문의: 이안나목사(010-7348-2300)
- 접수방법: www.국제영성대학.com

